



전주매일



6·3 지선 전북 사전투표율 35.05%... 역대 최고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보다 10.64%p 상승 도민의 높은 관심·성숙한 정치의식 반영된 결과 본투표는 3일 도내 거주지 각 지정 투표소서 실시

전북지역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북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간 초반부터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사전투표율도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이번 사전선거 투표율은 35.05%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사전투표율 24.41%보다 무려 10.6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북지역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북이 오랫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도민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본선 경쟁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열기도 낮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당시 전북의 최종 투표율은 48.7%에 머물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몇몇 선거구의 무투표 시·군 의원과 도의원 당선 지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과 도정 연속성을 내세우고 '도민후보'를 자임하며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조직력을 앞세운 이

원택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후 5시 내 접전 양상이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긴장감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에 대해 "전북에서도 더 이상 특정 정당의 독주를 당연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도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면서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사전투표 첫날인 29일부터 도내 주요 사전투표소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진 출근길 직장인과 청년층 고령층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후보 진영 역시 조직 동원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전선거를 목려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오전 8시 30분께 전북도청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으며,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도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전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오전 9시께 사전투표를 마친 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이 주시는 한표가 그냥 참여하는 한표가 아니라 우리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로 만드는 역사적 한표인 만큼 꼭 투표를 하시라"고 말하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도



임실N장미축제 분위기 한껏 올리는 로즈퍼레이드

임실N장미축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임실군 임실치초등학교 앞 로즈퍼레이드에서 로즈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도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9시 15분께 투표를 진행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당초 오전 9시 투표를 예정했으나 방송 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변경해 낮 12시에 전주시 우이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남호 전북 도교육감 후보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익산 북일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익산농공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만 7년여간 익산에 거주했고, 자녀들도 이곳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익산을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한다"고 밝히 눈길을 끌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사실상 '투표를 전쟁'으로 보고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 참여로 이어질 경우 전체 투표율 상승은 물론

막판 관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 인력에서는 사전투표율 상승이 반드시 최종 투표율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 과거 일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여가 늘었음에도 본투표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본투표 당일 유권자들의 참여 흐름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좌우할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인 전북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성숙한 정치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별취재반

국민연금, 올 1분기 운용수익률 4.42%

기금적립금 1526조원
중동 전쟁 여파 속 해외 연기금 대비 선방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올해 1분기(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이 1,52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88조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운용수익률은 금액 기준 수익률 기준 4.42%로 잠정 집계됐다. 공단은 이번 성과가 해외의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는 -1.9%, ABF는 -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1.67%, 해외주식 -0.11%, 국내채권 -2.03%, 해외채권 4.98%, 대체투자 5.27%로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중동 전쟁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에도 반도체 업종 중심 상승세가 이어지며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반면 해외주식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영향으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채권 부문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채권은 평가가치 하락 영향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이자·배당 수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환산율 등이 반영된 결과로, 공정가치 평가는 이번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분기 운용수익률은 중동 전쟁 여파로 2월 말 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며 양호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장기 투자자로서 흔들림 없는 운용철학과 철저한 위험관리를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부안 해역에 인공어초 1300개 신규 설치

도, 수산자원 회복·어업인 소득 증대 위해... 총사업비 23억 투입

군산·부안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군산·부안 해역에 인공어초 1,300개를 신규 설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군산·부안 해역 104ha에 사각형 인공어초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현재 육상 제작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배치와 크레인 활용해 바다에 투하할 예정이다.

인공어초는 바닷속에 설치하는 인공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지회도는 지난 1973년부터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도내 연안 해역 1만8,299ha에 총 7만6,949개의 인공어초를 설치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획량은 미설치 해역보다 평균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인공어초 설치 이후에도 사후 관리와 어장 환경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어초 상태 점검과 함께 폐어망 등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도 추진해 인공어초 기능 유지와 해양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오만호 기자

6월 4일 신문 발행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안내

일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거주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위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캡처 등 저장 이미지 사용 불가)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에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